경기장 난입꾼의 (불)신앙

(이사야 37:1~38)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2.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4.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경기장 난입꾼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경기장 난입꾼의 (불)신앙'
경기장 난입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불신앙일까요?
얼마 전 8월 16일에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도박꾼들 사이에서 프랑스는 이미 유력한 우승후보로 예견되었습니다. 경기가 2:1로 크로아티아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 기세를 잡은 크로아티아가 역전을 위한 총공세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난데없이 남녀 4명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선수가 아닌 외부인 14명이 경기장을 누비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자 크로아티아 공격의 기세가 끊어져버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무척 화가 나 있었고, 반면에 난입한 사람과 프랑스 축구 선수는 서로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국민들과 축구팬들이 보기에는 난입한 사람들이 정말 미웠을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붙잡혀서 15일 동안 구류되었고 3년 동안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모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장 난입 사건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난입자들과 이들을 제지하려는 안전요원들이 사방을 누비게 되고, 정작 뛰어야 하는 선수들은 넋이 빠져 이들을 구경하면서 경기는 멈추게 됩니다.
경기장에는 선수들만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관람과 응원은 관중석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관람객이 난입했을 때에 경기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선수(選手)는 '골라 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수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삶을 사실 때에 삶의 현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수로 뛰셨던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선수(選手)라는 말에서 손'手'를 쓰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수로 뛰시는 경기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시며 사셨습니다. 마치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 하셨던 것입니다.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뛰어야할 선수는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응원단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기에 예수님이 보이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할 참 모습입니다.
이처럼 선민은 하나님이 선수가 되셔서 손수 행하시는 경기장을 삶의 현장으로 삼고, 진짜 선수이신 하나님이 뛰시는 모습을 응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경기를 이끌어가려는 관중은 난입꾼입니다. 경기장에 난입해서 자기가 선수인줄 알 때에, 진짜 선수이신 하나님은 우두커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리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삶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삶이라는 경기장에 난입해서 선수처럼 뛰어다니던 삶이 십자가를 통해 뒤집힐 때에, 우두커니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선수로 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인간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응원석에 있어야 될 나와 선수로 뛰시는 하나님의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기장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경기장에 난입해서 뛰면 하나님께서 경기를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활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수로 뛰고 계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부의 삶, 부모자식 간의 관계, 직장생활 등을 비롯한 모든 곳이 경기장입니다. 선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체가 된다면 경기장에 난입한 난입꾼이 됩니다. 엄마가 자녀를 걱정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월드컵 경기장에 관중이 난입한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잘하는 짓인 줄로 알고 스스로를 선수로 착각해서 계속해서 뜁니다. 그동안 선수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해 손대실 수 없고 우두커니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6~3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 이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선민과 하나님을 모독하던 앗수르의 산헤립 왕과 장군 랍사게가 이끄는 보무당당 기세 등등 십팔만 오천 명의 앗수르 군대가 전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남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이들을 치심으로 자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수가 되셔서 손수 행하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3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뛰시는 선수이시며, 손수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의 군대는 단숨에 예루살렘을 삼킬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온 국토를 유린하며 황폐케 했습니다.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가 닥쳐온 상황은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뛰어야 될 선수는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도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박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든다면 경기장에 관중이 난입한 난입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난입하면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열정과 열심히 중단될 수밖에 없

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앗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부분입니다. 앗수르의 침공 위기를 당할 때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겠다는 취지의 기도회가 열리는 이유가 오해 때문입니다.
특히 20절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수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응원하는 기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뛰실 때에 필요하다면 구원의 역사를 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응원입니다.
이 기도에서 선수로 인정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삶이라는 경기장에는 하나님이 선수가 되셔서 손을 대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움직여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의 생각과 몸을 장갑삼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장갑삼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경기장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난입을 종용합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서 직접 뛰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 뒤바뀐 입장을 바로잡았습니다.
내가 선수인줄로 아는 착각에서 벗어나 관람석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경기장에는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바로잡음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스스로를 선수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이 난입꾼이 되고 맙니다. 이 착각을 바로잡는 방법이 1절부터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하였고, 또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

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를 겪을 때에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재난의 상황에서 참회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과제로 삼은 것은 앗수르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결사항쟁의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왕의 신분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찢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회를 뜻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으로써 해온 역할을 참회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위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왕의 책임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까지의 행동을 참회하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계획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앗수르의 남하를 막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왕으로써 합당한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이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뛰시는 경기장에 난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선수로 뛴 결과가 앗수르의 2차 침공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참회하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관중이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뛴다고 해서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붙잡혀서 유니폼을 빼앗기고 쫓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왕의 옷을 찢은 이유입니다. 관중이라면 응원복을 입어야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써 자녀를 붙잡고 바로 이끌겠다고 애써왔습니다. 내가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경기장에 난입해서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경기가 중단되니 선수이신 하나님이 뛰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끌어내시는 일을 과제로 삼으십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참회는 부모의 역할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사장이라는 역할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장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사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대신 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모습을 응원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된 이유는 목회 현장이라는 경기를 직접 뛰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 위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서 뛰시는 선수가 되도록 모시고 나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응원석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선수로 뛰시게끔 만드는 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의지를 보이며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선수의 유니폼을 벗고 응원단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가 멈추더라도 성전에서의 상번제만은 진행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번제단에서 어린양이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반드시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상번제의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은 선수로써 뛰던 나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선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셨고 또 앗수르라는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앗수르를 마음에 담았을 때에는 스스로 선수가 되어서 운동장에 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가와 계신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마음에 모셔들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수가 되시고 히스기야는 응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를 담고 있었던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담는 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선수의 유니폼을 벗고 응원단의 유니폼을 입은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경기에 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선수이신 하나님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적용시킬 수 있었고, 이사야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해도 잘 죽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마음에 세상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삶의 문제에 대해 선수로써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 복음방송이 전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살다보면 여지없이 마음에는 세상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밖으로부터 들리는 십자가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쳐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야 성전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앗수르에 빼앗긴 마음에 대해 죽을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면서 십팔만 오천 명이 자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에 두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문제는 어김없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십자가 붙잡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몸이 아플 때에 약을 먹듯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세상이 물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삶이라는 경기에 난입하려는 나의 체질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선수가 되셔서 뛰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응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응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경기장에 난입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선수가 되시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응원하는 응원단으로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